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만나고 싶었습니다

-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 방안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 방안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진행자** ♀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와 최무현 교수입니다. 작년 20년의 역사를 가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 여성정치학자로서의 명성도 높으신데,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여성정치 운동에 헌신하게 되신 계기와 그 과정에서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권수현** ♀ 사실 선생님께서 예상하시는 것과 달리 저는 여세연 활동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원 박사학위를

하고 난 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여세연 전 대표님으로부터 부대표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정치학 전공자로 여성 정책 결정과정, 특히 의회에서 한국의 여성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나 그 과정과 관련된 논문을 쓴 상태였습니다. 사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운동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제가 한국의 여성운동 자체에 대해서 현장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이론과 현실의 괴리 같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세연은 여성의 정책세력화, 여성정치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제 연구를 연결시킬 수 있고, 여성운동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 ♀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여성정치를 전공하게 된 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권수현** ♀ 사실 제가 젠더정치(gender politics)를 전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여자 학교를 다녔어요.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도 여대를 나왔으니까요. 동성들끼리 생활하다 보니 성별에 따른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자랐어요. 한국사회에서 여성 프레임이 상당히 강한데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남녀공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젠더가 제 일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정치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젠더가 너무 간과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는 페미니즘 관점이 없었어요. 연구도 되게 한정되어 있고,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정치에서의 ‘여성’하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이슈와 할당제 이것과 관련해서만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이 분야를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남성동료들은 “너 뭐 먹고 살래?”라며 부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다녔던 대학원은 남성성이 강한 학교였는데, 오히려 저는 주변이 그러니까 잘 쓰든 못 쓰든 이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 ♀ 대표님께서도 정치학에서 젠더지향적인 연구가 부족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남성 중심적인 학문 분위기가 오히려 여성정치 연구의 계기가 되었고, 이게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영역으로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에서 실제로 넘어오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차이점은 없었을까요?

**권수현** ♣ 어려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이나 글로 뵈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2015년 경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제4의 페미니즘이라고 불린 만큼 20~30대 여성들의 이전과는 다른 페미니즘 흐름들이 나타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활동을 하는 데에는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시 여세연을 통해서 해외에 계시는 한국 여성정치학자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 아시아에서 gender politics를 하는 여성학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과 연구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오히려 에너지가 발산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진행자** ♣ 한국 여성운동 혹은 여성정치가 인적으로 편향되고 집단성을 갖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대표님의 경력은 조금은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운동이나 여성정치에서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현** ♣ 저도 여성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어서 과거의 여성운동과 현재의 여성운동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여성운동은 아니지만 1990년대까지 학생운동을 봤을 때 의사결정의 위계가 강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내부적으로 남성적이고 위계적인 게 있었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운동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권위적이고 위계가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계가 생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너무 대표로 받들거나 하는게 오히려 불편하고, 그냥 호칭은 그렇게 쓰더라도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식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근래 여성운동계의 집단성도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누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활동가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학력이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안 묻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해도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실제 이름이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명을 따로 쓰니까요.

**진행자** ♣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래 여성가족부에 대한 존폐론이 정계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에 최연소로 취임한 야당 대표가 직접 화두를 던진 것이 일파만파 커져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중요한 시금석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여성가족부에 관한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여가부 폐지론을 바라보는 여성정치 운동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권수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성운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이 어떤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가부 폐지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야기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야당의 모 대통령후보자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을 때, 여세연에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게으른 정책이 없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냈어요. 보통 논평을 냈다고 해서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세연이 논평을 잘했고, 이 논평 덕분에 투쟁할 수 있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치라고 했을 때 많이 떠오르는 곳이 여세연인데 여세연이 성명을 내지 않으면 여성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세연의 논평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여가부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여가부가 정권교체 때마다 존폐론에 휩싸이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여전히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했다는 뜻이고 현재 조직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에는 일정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가부 폐지로만 연결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효과적인 조직개편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맞는 방향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가부를 없애거나 약화시키자는 야당 정치인의 제안에 보수적인 여성운동단체조차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여세연의 성명은 여성가족부를 아무 대안없이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성가족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없애고보자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네요. 앞으로 여가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게 될 테니, 먼저 여성부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독자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체제로서의 여가부가 성취한 주요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현** ♀ 여가부의 성과라고 하면, 만일 여가부가 없었다면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을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존폐의 위기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성인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은 그 자체로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법제화되었고, 그것을 지원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및 프로그램들을 만든 것이 여가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성과라기보다는 여가부가 가장 빛났던 순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호주제 폐지의 성공으로, 이는 여가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숙원과제였음에도 17대

국회에 와서야 통과가 됩니다. 2005년 당시 진보적인 대통령과 집권당이 다수당의 지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호주제 폐지가 성공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가부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가부 장관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그것이 여가부의 입지를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빛나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성계가 해야 할 일은, 여성계와 여성운동계, 국회에 있는 여성의원들, 여가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가부 직원들 이 세 축이 얼마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젠더의제를 다루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가부라는 양성평등 관련 전문부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큰 성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가부의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되었고, 그런 추진체계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가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다음 논의로 넘어가서 이렇게 여가부가 성과를 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책도구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 등 같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현** ♀ 이 질문은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정책적 도구들이 도입이 됐는데 여성가족부가 이 도구들을 제대로 잘 활용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시다시피 도구가 있어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과 같은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도구의 활용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지난 보수정권 동안은 양성평등 관련 정책도구는 있었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활용하거나 추진할 만한 리더가 존재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가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보이는 리더가 장관으로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행자** ♀ 대표님 말씀은 정책도구가 중요하긴 한데 정책도구 이전에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권수현** ♀ 저의 생각은 정책도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도구들이 제도화되고 정착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이 제도화되는 데에는 제대로 된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경우 이 시기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도화나 정착이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도구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여성가족부가 원래 목표로 했던 성평등 사회 실현이란 목표를 이루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수현** ♣ 가장 큰 한계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인데, 여가부가 부처들 중에서 가장 위상과 권한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가부 체제로는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자** ♣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군요. 말씀하신대로 여가부의 위상이 낮고 권한행사의 범위가 좁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위상을 제고하고 권한범위를 넓혀 주면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일 때가 있어요. 위상을 높이고 이 기능도, 저 기능도 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여가부의 정체성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권수현** ♣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말씀하신 여가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성주류화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조직과 정책을 성주류화한다는 것은 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런 모든 부처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성가족부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부처를 다룰 수 있는 조정의 업무 혹은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여가부의 정체성과 무관한 다른 부처의 업무를 이것저것 받게 되면 여가부가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모든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듯이, 여가부도 모든 부처의 업무가 얼마나 성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여가부의 정체성과 크게 벗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진행자** ♣ 대표님의 말씀은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조정기능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위상 확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미있는 조정을 하려면 낮은 위상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 단계라도 높은 곳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가부가 개편될 때 나름대로 힘을 갖고 권한을 가지면서 여성들의 성평등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권수현** ♣ 정부조직이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과 같은 것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지는 효과는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성격이 있는 사업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주류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가부에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일정부분 부여하는 것인데, 이게 성주류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여성가족부인데 여성을 뗄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다못해 양성평등가족부라든지. 또한 여가부의 정체성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권수현** ♣ 여성을 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전 정부조직개편 때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성이라고 특정하면서 마치 여성만 다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남성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가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남성청소년들도 당연히 여성가족부가 다루는 법률 안에서 같은 피해나 보호가 필요하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꼭대로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없애자는 데 일견 동의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여전히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나 아니면 성차별 색시즘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젠더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의미, 성별화된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실 저는 여성이라는 단어보다 가족 단어를 빼는 게 더 맞지 않나 합니다. 여성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의 역할, 주행위자로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는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정권마다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총리 직속이든 대통령 직속이든 사실 행정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직속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처럼 그게 법제화되는 조직이나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위원회가 얼마나 각 부에 통제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



다. 특히 그런 위원회가 있어도 사실상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가부를 없애고 위원회를 두겠다는 발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부처를 전제로 위원회를 둘 때 위원회가 법률로 돌릴 때 그런 위원회로 가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행자** 위원회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사무국을 두고 있는 전문부처의 형태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100% 공감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세연에서도 원하던 원치 않든 여가부 존폐에 관련된 성명서를 냈던 것이 이런 원인에 대한 여성계의 발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여성쪽으로 심화돼서 들어가면 여세연도 나름대로 방안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방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가 가진 카드는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답변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수현** 알겠습니다.

**진행자** 인터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번 여가부 폐지론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특히 젊은 MZ세대의 남녀간 인식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점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차이가 남녀간 혐오문화로 자리를 잡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남녀간에 서로 혐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젠더라는 말 자체가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여성정치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수현** 너무 어려운 문제고 절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여성혐오는 misogyny를 번역해서 나온 건데요. 사실 여성혐오, 남성혐오가 서로 등치되는 상반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여성이 남성에게 갖고 있는 적대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사실 성폭력가해자와 같이 여성을 공격한 개인 남성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남성들 개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 있는 존재이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려고 하거나 그런 여성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남성을 싫어하거나 남성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남녀혐오 논의는 성차별적인 구조의 문제를 개인간의 갈등으로 치환해 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20대 남성이 가진 여성에 대한 태도는 이전 세대의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세대 남성들은 그 시절에는 남성들 절대다수가 일자리든 권력이든 모든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 불쌍히 여기는 태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요즘 젊은 남성들은 온정적인 태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학교에 여성이 적었고 여성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 똑같이 공부하고 여성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약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전처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여성들을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화풀이나 공격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젊은 남성의 불안의 감정, 여성에 대한 학대, 적대, 혐오의 감정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 쓰고 있는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온라인에서 20대 남성들의 말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언어가 정치권,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인을 통해서 승인되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혐오 언어의 문제, 누군가를 적대시하거나 이런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긴 시간 성실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권수현** 🗣️ 마지막 멘트요, 뭐가 있을까요? 여성 정치학자로서 앞으로 여성운동과 여성연이 해야 할 과제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여성’ 젠더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연도 정치영역에서 젠더관점에 기초한 데이터 구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별로 없지만 한국의 젠더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젠더정치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한국 시민사회 운동이 투쟁일변도의 예전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님의 말씀대로 보다 데이터에 기반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여성정치 운동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긴 시간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 : 젠더리뷰 기획팀

■ 진행자 :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권센터장